

테마칼럼

이성세계

판공의 경이

강제비교

행피담양

여성의 육체



김정란 (시인·상지대학교수)

인류는 특정시기까지 정신이 육체와 물질에 비해 압도적인 우위를 차지하는 방식으로 세계를 경영해 왔다. 그 밑바탕에는, 항구적인 정신과 번덕스러운 물질이라는 철학적 견해가 깔려 있다.

그러나 인류는 소위 '근대'라고 불리는 시대를 지나면서 물질 토대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기 시작했고, 번덕스러운 자연은 상당 수준까지 통어되기에 이르렀다.

아름다운 몸은 그 자체로 군림

인간은 물질의 통제자로서 최고의 지위에 올라섰지만, 물질을 통어하는 정신 대신 이제 물질 자체가 발언권을 획득해 가기 시작했다.

나누거나 물질을 두려워한다. 그러한 변화에 동반되는 것은 육체의 승리이다. 육체는 이제 생의 매체에 불과하지 않다. 그것은 이제 정신의 그릇이 아니다.

스포츠맨과 배우들, 아니다, 더욱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의 아름다운 몸은 현대의 제우스이며 아폴론이며 비너스이며 헤라이다.

이러한 변화의 딱 한가운데에 여성의 육체가 있다. 여성의 육체는 오랫동안 자연과 동의어였기 때문이며, 남성들의 유혹자로서 온갖 형이상학적 압박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여성의 육체는 자연과 더불어 복권되었지만, 그러나 그 육체는 미묘한 방식으로 또다시 소외의 고통을 겪고 있다. 복권된 것은 자연인 육체가 아니다. 복권된 것은 이미지인 육체, 가장 비육체적인 육체이다.

진짜 육체는 여전히 쓰레기통에 처박혀 있으며, 헬리콥터-올림푸스의 정상에 등극해 있는 아름다운 육체-이미지의 열등한 관념에 불과하다.

최근에 대한민국에는 44사이즈만을 여성의 현실적 육체로 인정하는 상업적 트렌드가 존재

한다고 한다. 44사이즈만을 취급하는 전문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66이상은 아예 취급하지도 않는 가게들이 많다고 한다.

잉여분의 살덩이

달리 말하면, 44사이즈를 넘는 사이즈를 가진 여성의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 "잉여분의 살덩이"라는 뜻이다. 그녀들은 따라서 여신들(메스컴이 유포하는 이미지의 원형)이 모범으로 지정한 "옷"을 입어서는 안되며, "옷 아닌 옷" 즉 "누더기"를 걸쳐야 한다.

44 사이즈를 넘는 육체는 육체가 아니라 살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진짜 여자들은 진짜 여자들, 바비 인형들에게 자리를 내어주고 스스로를 다시 살덩이의 지위로 떨어뜨려야 한다.

아주 기묘한 소외의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인간은 물질을 정복했지만, 그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였을 뿐이다. 육체는 복권되었지만, 그 육체는 이미지의 노예 노릇을 하고 있다.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노벨평화상 頂上회의의 '광주선언' 기대된다

어제부터 광주에서는 참으로 역사적인 회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대를 모으던 노벨평화상 수상자 광주 정상회의가 사흘 일정으로 마침내 열린 것이다.

유렵의 독일에서 월드컵 대회가 '인종차별은 그만, 이제 친구를 사귀어라' 이라는 대회 슬로건으로 열리면서 지구촌에 평화와 우의를 북돋고 있는 시각, 극동 한반도의 민주성지 광주에서 열리는 평화의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인종·종교·문화간의 대화함을 논의하는 잔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 아닌 광주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정상회의의 마지막날 채택될 '광주 선언'에 어떤 내용이 담길 지에 큰 기대를 품게된다.

'광주 선언'은 한편 인권과 평화, 민주주의라는 보편적 이상을 강조하는 것 외에 북한과 미국을 향해 자제전환을 촉구하는 동시에 일본과 중국의 군사적 팽창 및 아시아 국가들의 인권상황 개선에 대해 경고를 보내는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이제 아시아에서 평화·인권·민주주의를 대표하는 도시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 광주시민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번 정상회의에 관심을 쏟을 때 광주선언이 더욱 빛날 것임은 말할 나위 없다.

영산강 수질개선비용 지자체에 떠 넘겨서야

지방자치단체들이 오염배출 총량 감축규모를 설정함으로써 획기적인 수질 개선이 기대됐던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제가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이 없어 사실상 실현이 불가능하게 됐다.

문제는 환경부 목표대로 오는 2010년까지 현재 8.2ppm인 영산강 광주·나주 강계지점의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를 3급수 수준인 5.6ppm까지 낮추는데 막대한 지자체 예산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수계와 맞닿아 있는 지자체들은 2010년까지 1조원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

더욱이 수질개선목표가 달성되지 못할 경우 지역개발을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어 각종 개발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광주·전남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영산강 수질오염 총량제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최고 30%에 불과한 현행 광역시 국고보조율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

無等鼓

발트 전설에서 법과 질서의 수호신은 도끼를 든 페르콘스(Perkons)다. 그는 수레를 타고 하늘을 날아다니면서 농부들에게 비를 뿌려준다.

페르콘스의 벼락
벼락의 폭은 1cm에 불과하나, 초속 1천600km 속도로 떨어진다.

페르콘스의 벼락



이와 학부도 17명에게 벼락이 떨어졌으나 모두 생존했다는 진기록도 있다. 미국의 B.프랭클린은 1752년 연(鸞)으로 대기 중 방전현상(放電現象)을 확인했다.

장마전선이 다가오면서 습기를 머금고 따뜻한 남서풍이 상층부 찬공기와 충돌, 벼락이 잦아지고 있다.

난 10일엔 광주공항 미(美) 패트리엇 미사일 운용팀에 벼락이 떨어져 미군 1명이 죽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

최근 경기도 광주의 한 골프장에서 50대 남자가 벼락을 맞고도 살았다. 미국의 산림 경비원 설리번(Roy Sullivan)은 1942~1977년 일곱 차례나 맞고도 끄떡없었다고 한다.

meonsan@kwangju.co.kr

기고

이상진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마늘·양파를 캐는 농부들에게는 수확의 기쁨을 짓누르기에 충분하리 만큼 큰 육체적 고통을 가져다주는 6월의 뜨거운 띄와 벌이 부담스럽기만 하다.

입는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농산물 발매기거래 개선안'을 마련,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실 감안한 발매기거래 제도개선을

급불안폭풍은 생산량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기 때문에 수요공급의 법칙이 잘 적용되지 않는다.

이 간다. 발매기거래도 분명 산지유통거래 중 하나이며 산지농산물을 소비하는 주요 수단임에 분명하기 때문에 계약의 실행에 따른 문제보다는 계약 이후 이행에 따른 강제조항이 강화돼야 할 것이다.

들끓는 잠상인들, 지역축제 분위기 망친다

취미로 사진 촬영을 하고 있어 여러 지역 축제를 돌아다녀 왔는데, 가는 곳마다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는 잠상인들 때문에 지역 축제 분위기가 망가지고 있다.

나쁜 이미지만 갖고 돌아가기 일쑤다. 지역 홍보를 위해 마련한 축제가 오히려 지역의 나쁜 이미지를 심어주는 것이다.

▲박미영·광주시 남구 행동동

기고

김중원



광주 시내 어느 한 식당 주방 유리창에는 주인이 '손님이 짜다면 짜'라는 문구를 써 놓고 장사를 한다.

있다. 고객들의 이 같은 호응은 무조건 '네'라고 말하라는 철저한 서비스 정신에서 비롯된다.

고객만족 이야기

당한 대가를 원한다. 그래서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은 서비스를 받게 되면 불만족스럽다는 표시를 강하게 하고, 기대했던 것 이상의 서비스를 받으면 만족하게 된다.

케치프레이즈를 내 걸고 차별화된 정신을 보여주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고객의 마음까지 읽을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아이들 개인주의적 성향이 학교붕괴 가져온다

최근 초등학교 3학년인 아이들이 몸이 불편해 학교까지 바래다 주려고 교실에 들어갔더니 교실 환경에서 또래 여자아이와 남자 아이가 싸우고 있었다.

에게 자조지조를 물었더니 자신도 모른 채 했다는 것이다. 싸움을 말리면 말리는 사람에게 화살이 돌아와 또 다른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 아들이 밝힌 이유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 지급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Kwangju Ilbo and The Kwangju Ilbo. Contains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publication details.